



정읍구절초꽃축제, 위생·안전한 먹거리 교육

정읍시는 지난 28일 2청사 강의실에서 제17회 정읍구절초꽃축제 판매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및 영업허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총 59개소의 마을 단체, 업체 등이 참여해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교육에서는 올해 축제 개요를 안내하고, 참가자들에게 식품 위생관리, 임시 영업허가 신청 절차, 영업허가 관련 법 조 내용 등을 교육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한 대화용기 사용 방법과 위생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등을 설명하며,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참가자들의 책임감을 고취했다. 또한 각 판매장의 부스 위치를 추첨을 통해 결정, 이를 통해 축제 참가자들 간의 협력과 상호 이해를 도모했다.

최일호 구절초축제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제장에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고 서비스 마인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구절초 꽃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며 "지역의 맛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제17회 구절초 꽃축제는 오는 10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 11일간 구절초 지방정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경수 창업지원단장, 창업 강화 위해 1천만원 기부

전북대학교 국경수 창업지원단장(공과대학 전기공학과 교수)이 대학의 창업지원 역량 강화를 기원하며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1일자로 임기를 시작한 국경수 창업지원단장은 "창업은 일자리 창출을 넘어 우수 인재들의 지역 정착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솔루션이 될 수 있다"며 "전북대학교가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창업의 발굴·검증·사업화·보육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앞으로는 대학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의 창업에 대한 참여를 더욱 높이고, 대학의 창업지원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뜻을 밝혔다.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 따르면 지난 28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감사패 등을 전달했다. 한편 이번 기부금은 국 단장의 뜻에 따라 창업지원단의 창업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창업 우수 인재 양성 사업단 역량강화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전주=성기자



무주군의회 2024년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는 29일, 무주 상상변태수체움·학습실에서 고위직(의원,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북교육청 성교육 자문위원 최성광 강사를 초빙,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으며, 이는 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법정 의무 교육이다. 또한, 무주군의회는 이날 의원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도 실시했다. 교육은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의 이진문 이사장이 맡았으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에 대해 강의했다. 오광석 의장은 "공직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무주군의회가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항상 노력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방향성 제시

'2024 청년의 발견' 콜로키움 개최, 전북여성청년양성평등센터-김제청년공간서 다양한 논의

전북여성청년양성평등센터는 지난 28일 김제청년공간 E:DA(이다)에서 '2024 청년의 발견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미디어를 활용한 비즈니스 관계 속 양성평등을 주제로 김제시 청년(예비)창업가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와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서 강지이 영화감독(전북여성가족재단 양성평등 위촉 강사)이 '비즈니스 관계 속 성인지 감수성'을 주제로 미디어 장면을 활용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과 지향해야 하는 비즈니스 방향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퍼실리테이션 및 라운드 테이블 토론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비즈니스 환경에서 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업무 중에 겪을 수 있는 성차별적 상황을 미디어 속 사례를 통해 배우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아이디어를 자신의 사업 운



영 과정에 적용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전정희 원장은 "이번 콜로키움은 김제시 청년 창업가들과 소통하고 청년 리더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성평등한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권노태 기자

전북자치도, '이달의 혁신 주인공' 선정과 윤양호 주무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8월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혁신 주인공'으로 선정과 윤양호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매월 다른 주제로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혁신 주인공'을 선정하고 최병관 행정부차와 송상재 노동위원회장이 직접 나서서 격려하고 있다. 윤 주무관은 올해 초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출장에서 고역·장기 체납자 관리의 어려움과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즐기는 악의적인 체납자를 추적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 결과, 윤 주무관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징수 목표를 상향 조정해, 고역·상습체납자 가택수색 지원 및 집중 관리를 통해 도세 체납액 징수 실적을 대폭 향상시켰다. 전북자치도의 도세 체납액은 235억 원으로, 당초 행안부에서 부여한 2024년도 전북자치도의 징수 목표는 37.9%인 89억 원이었다. 그러나 윤 주무관은 이 목표를 10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도·시·군 광역징수반을 구성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상반기 지방세 체납 일체 정리 기간인 5월 말에는 57억 원(63.7%)을, 7월 말에는 66억 원(62.3%)을 징수하며 목표를 달성했다. /전주=성기자



특히, 윤 주무관은 시·군 고역체납자 방문징수, 5개 시·군의 가택수색 지원, 유관기관의 체납처량 합동단속 지원 등 발로 뛰는 적극행정을 실천했다. 또한, 팀 인원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추가 업무를 열정적으로 소화하며, 추심전문 임기제 채용계획 수립, 지방세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5천만원 이상 체납자 감치 등 다양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만호 기자

고창군장학재단, 지역인재 육성 위한 이사회 열려

고창군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역군이 될 지역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재)고창군장학재단(이사장 심덕섭) 이사회가 지난 28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재단은 이번 이사회에서 감사 및 사무국장 연임(안), 인사 및 보수 규정 일부개정(안),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고창정화수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등 5건을 심의했다. 특히, 재단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무국장 및 관리소장의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또 재가정 장학생 기준을 3차원에서 2차년로 변경하고 장학금 입학생 선발시 다차년가정 가정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차년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심덕섭 이사장은 "지역 인재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높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장학재단의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고창의 미래를 위해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 도봉동 지사협,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도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동장 소신자, 민간 서덕교)는 지난 28일 1일가구 소풍행정을 통해 발굴한 양평해장국 시정점(대표 박숙자)에 착한가게 2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매월 매출의 일정액 (월 3만원 이상)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기부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도봉동 맞춤형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박숙자 대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한편 소신자 도봉동장은 "기부금은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농협, 남해화학 방문 '밥심·쌀심' 캠페인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지난 28일 농가주부모임과 남해화학을 견학하고 농업·농촌의 힘, 쌀심! 밥심! 범국민 아낌받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김제지역의 브랜드 쌀 지평선 을 홍보하고, 소비 감소와 이에 따른 쌀 재고 증가 및 쌀값 하락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깊어지자 아낌받기회를 통한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용 조합장은 "쌀은 탄수화물과 영양소들이 풍부하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제공해 활발한 활동을 할 때 지지치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며 "쌀 소비 촉진 운동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농업과 지역경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제=권노태 기자



남원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활성화 교육

남원시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9일 남원의료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활성화 교육'을 실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사람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정책이다. 이날 교육은 보건 의료·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공공분야 담당 공무원과 5개 관계기관 실무자 등 100여 명이 참석,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이해와 전이안 주제 강의를 청취했다. 하인선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 내 네트워크를 강화, 통합돌봄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등,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 순현교회, 전주교대에 30억 상당 부동산 기증

전주 순현교회가 40년 동안 가꿔 온 시가 약 30억원 상당의 교회 부지와 현금 2,000만원을 전주교대대학교 발전지원 재단에 기증했다고 29일 전했다. 순현교회 최무안 장로(현 전북예총회장)와 교인들은 "병생 나눔과 봉사를 몸소 실천하셨던故김성진 목사님의 깊은 뜻을 이어받아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며 "많은 예비교 사들이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을 이끄는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병춘 총장은 "오랫동안 가꿔 온 교회 부지를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신탁 기부해 준 교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발전하는 초종교인 양성 대학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주=성기자



남원 주천면, 경로당 안전·회계 교육

남원시 주천면은 29일 관내 경로당 24개소 노인회장과 사무장(50여 명)을 대상으로 늘기로운 경로당 생활을 위한 보조금 사용 및 경로당 운영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경로당 보조금 사용 기준과 정산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여 실제 보조금 사용·정산 시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경로당 상시 개방으로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남원시 누리시민 등록 안내 및 국제 드론제전 등 시정소식들을 적극 홍보하였고, 폭염예방 및 위생교육을 함께 실시하여 더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낙우회, 720만원 상당의 우유 정기후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낙우회(회장 심재원)가 29일 저소득 독거노인에 지원해달라며 720만원 상당의 우유(200ml)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된 우유(200ml)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추천된 독거노인 63세대를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1년 동안 제공되며, 주 1회 2팩씩 생활관리사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심재원 회장은 "우리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이번 기탁을 결정했다"며 "이 우유가 어르신들의 건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낙우회 회원들의 나눔 실천에 감사드리며, 지역의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제=권노태 기자